

주일 1-3부 설교노트 / 나눔교재

설교자: 김한요 목사

달려가 목을 안고 끝없이 입맞추다 누가복음 15:11-24

1.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(Robert Louis Stevenson)의 단편소설 "지킬 박사와 하이드"는 마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형과 동생 같습니다. 어떤 의미에서 그럴까요? (삶을 보는 두 가지의 시각)

1) _____

2) _____

2. 탕자가 '스스로 돌이켜'(17절) 가졌던 생각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?

1) 18절: _____

비교/ 29절: _____

2) 17, 20절: _____

3.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를 결심한 탕자는 아버지를 만나면 어떻게 용서를 빌지 연습까지 합니다. 그러나, 그가 연습한 말을 하기 전에 경험한 것은 무엇입니까?(19-21절)

4. 우리는 아버지의 집을 떠난 탕자이기도 하고, 돌아오는 동생을 맞이하지 않고, 자기의 공적을 계산하며 불평하는 형과 같기도 합니다.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에게 베푼 은혜는 원래 누가 했어야 합니까?(22-23절)

5. 나는 탕자입니까, 탕자의 귀향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맏아들입니까?

■ 적용찬양: 그 사랑

적용하기

